

GIST, 제65회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최섯별 교수 초청

- 최섯별 교수, '세대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주제로 세대 간 가치관과 소통 방식의 차이 조명
- 고도성장기저성장기 경험에 따른 세대별 인식 차이 살펴보고 조직 내 소통과 협력 방안 제시



▲ GIST아카데미가 10월 26일(월) 오룡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최섯별 교수를 초청해 제65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10월 26일(월) 오전 7시 GIST 오룡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최섯별 교수를 초청해 '제65회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세대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를 주제로 세대별 성장환경과 가치관의 차이가 조직 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소통 방안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문화사회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사회학회장과 세계사회학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연대기』, 『예술의 사회학적 읽기』, 『취향과 불평등의 사회학』 등이 있다.

이날 최 교수는 '세대는 시대의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각 세대가 경험한 역사적·사회적 환경이 가치관과 행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다.

▲ 산업화세대 ▲ 베이비붐세대 ▲ X세대 ▲ MZ세대의 특징을 비교하며, **공동체 의식과 성실·근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개인의 자율성·평등·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차이가 서로 다른 시대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특히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기회구조의 차이'를** 제시했다. 고도성장기에 사회에 진출한 베이비붐세대와 저성장·취업 경쟁 심화 속에서 성장한 MZ세대는 **노력과 성과, 직장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기성세대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해 온 반면, 젊은 세대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한 환경을** 경험해 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인식 차이를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닌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경험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대 갈등 사례를** 통해 같은 상황도 세대별 가치관과 소통 방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특히 야근수당에 대한 인식 차이와 업무 지시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서로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닌 세대적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형성해 온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조직 내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세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세대 간 통역사' 역할을** 해야 한다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GIST아카데미 원장(교학부총장·대외부총장)은 “이번 강연은 서로 다른 세대가 경험해 온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을 통해 지역 기업인과 동문들이 **경영 현장에 필요한 통찰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GIST아카데미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5월·6월·9월·10월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 기업인과 동문들을 위한 조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